

쓰레기가 고체연료로...SRF시설 내달 가동

〈고체 연료화〉

광주시 2년만에 완공...1일 680t 처리해 415t 생산 매립폐기물 35% 수준 감축...매립장 수명 30년 연장

광주시는 그동안 매립하거나 태워 없었던 생활쓰레기를 고체 연료로 만드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이달 말 준공한다.

지금까지 광주시에는 연간 발생하는 약 18만t의 생활쓰레기 중 8만t을 소각하고, 10만t은 매립해왔다.

그러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이 가동되면 총 발생쓰레기 가운데 40% 정도는 매립하되, 60%는 잘게 분쇄하고 압축해 깨알(2mm) 크기의 고체연료로 만들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환경부의 폐기물 자원화 정책 국가시범사업에 참여해 일상 생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기존 폐기물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선별과 파쇄만을 통해 제품(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제품)을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 정책을 도입했다.

SRF시설은 2013년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민관합동 법인화 및 민간자본 출자방식을 도입해 시비를 최소화했으며, 국비 459억원, 민간자본 411억원, 시비 59억원 등 총 929억

원을 들여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2만1900㎡ 부지에 지난 2014년 12월말 착공했다.

시는 SRF시설이 올 12월 준공검사와 사용개시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가 2015년 기준 1일 평균 680여t의 생활폐기물을 밀폐식 생산공정에서 친환경으로 처리하고, 약 415t의 고형연료제품(SRF)을 생산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시설 등에 전량 판매할 계획이다.

SRF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시에 기부채납하고 광주시, 한국난방공사, 포스코 등 8개 기관에서 공동 출자에 설립한 청정빛고을(주)에서 시로부터 위탁처리비를 받아 15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또한, 상무소각장이 내구연한 도래

로 폐쇄하게 되면 SRF시설이 이를 대체하게 되는데 소각시설과는 다르게 소각과정 없이 단순히 선별과 파쇄 과정만으로 고형연료제품(SRF)을 만들기 때문에 유해성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광주시 김석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선진방식의 친환경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도입으로 기존 소각과 매립 시 우려됐던 대기질 및 수질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도시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달 말까지 폐기물을 투입해 설비 성능 등을 시험하는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준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英 캠브리지대 강단에 선 윤장현 시장

‘또 민주화 인권신장 위한 광주 역할’ 강연...오늘 독일 방문

윤장현 광주시장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스턴대, 중국 칭화대에 이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강단에 섰다.

8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윤장현 시장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초청을 받아 7일 아시아중동연구단과대에서 ‘아시아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광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케임브리지 대학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학하고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던 곳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대학이기도 하다.

윤 시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담은 광주정신이 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맹자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연대’의 의미로 연결해 광주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시장은 “광주가 캄보디아에 진료를 설립·운영하고 네팔 지진 때 긴급의료 구호단을 현장에 급파한 것은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측은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광주는 핏박받는 민중, 인권과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민중과 꾸준히 연대를 모색하며 지원하고 있

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광주일보사와 아시아 다문화가정 지원단체인 (사)희망나무가 주체가 돼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의약 5단체로 구성된 ‘광주 진료소 추진위원회’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그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사재를 털어 국제청년캠프를 열고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을 통해 동티모르의 실상을 알고 독립운동을 돕게 된 과정도 소개했다.

윤 시장은 특강 후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훈인 클레어홀을 방문,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기록을 전시한 사진전을 관람했다.

윤 시장은 9일과 10일에는 독일을 방문, 라이프치히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2016 세계기록물-무역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카를스루에에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기관인 ZKM(Zentrum für Kunst und Medientechnologie)을 방문한다.

광주시는 이번 강연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광주를 세계와 소통하고 연대하는 도시로 새롭게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말’로 받은 상처 ‘좋은 말’ 들으며 치유

광주시 전국 첫 시행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사업 호평

최근 감성노동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광주시의 힐링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언어폭력·실적경쟁 등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상담사의 정신건강 및 고용유지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의 힐링사업을 실시했다.

시는 9일 중관관리자 힐링을 마지막으로 올해 총 15회에 걸쳐 327명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힐링사업을 펼쳤다.

사업은 각 고객센터의 근무조건 및 상황특성을 감안해 반나절형, 하루형, 1박2일형 등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 또한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사들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딱딱한 심리상담치료가 아닌 사전검사를 통해 자유동작 감성놀이, 마음챙김 명상, 표현예술치료, 숲힐링 등 맞춤형으로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힐링사업에 참가한 한 상담사는 “일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다가 힐링사

업에 참여해 좋은 말, 긍정적인 표현들을 듣고 즐길 수 있어서 한결 치유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담사는 “같은 상담업무를 하는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 오랜만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애니메이션(성격유형론), 명상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을 더 많이 이해하는 한편, 상담 업무시 감정조절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소감도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24일 고객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7회 한마음페스티벌 개최 등 고객센터 상담사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객센터 신·증설 기업 지원과 신규 상담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SK텔레콤, KDB생명 등 58개 센터에서 7447명 고객센터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함께 해봐요 ~ 초록밥상 운동”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최근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에서 2016 초록밥상 로고송 전국 율동대회를 개최했다. 경연에 참가한 초등팀이 건강한 채식 밥상을 재미있는 율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회 최우수상은 영주초등학교의 ‘예그리나-사랑하는 우리사이’ 팀이 차지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집중 단속

광주시 10~16일 자치구와 합동점검반 운영

광주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시·자치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 거래건수가 많고 중개 관련 민원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중점점검 사항은 중개보조원 대리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 여부, 자격증 대여 등 무등록 중개행위 여부,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여부, 서명·날인 누락 여부, 초과 중개수수료 수수행위,

표시광고 위반행위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법규정에 따라 최고 자격취소와 개설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시 김용성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점검 이후에도 상시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오천경매

▶비법 배우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투자 하실 분 /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